

+ 찬미 예수님

저스틴 신부님의 8월 15/16일 (토,일) 미사 강론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과 저스틴 신부님의 강론이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마음과 영혼에 많은 은총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Do You Know Your Best Place To Pray?)**

여기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피정지(<https://broom-tree.org/wp-content/uploads/2018/09/RetreatCenterFeaturedImage.jpg>) 또는 이탈리아 아시시에 있는

피정지(<https://www.planetware.com/wpimages/2018/11/italy-assisi-attractions-town-overview-sunny-day.jpg>)에서 30일 피정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앞으로 30일을 침묵과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할 때 나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어느 것이 더 좋으냐가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냐하는 것입니다.

- 오늘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성당인가요, 다른 성당인가요, 우리 조배실인가요, 아니면 집인가요?

-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우리의 기도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시끄럽고 산만합니다; 어떤 곳들은 편안함, 아름다움 또는 성체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게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성스러운 장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입당송은 시편 8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정녕 당신 앞뜰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천 날보다 더 좋습니다”(11절). 이 시편의 배경은 예루살렘의 한 성전에 가는 사람들의 순례입니다. 여기 그 사진이 있고 여러분은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앞뜰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순례자들은 열광했고 그 짧은 시간이 다른 어느 곳보다 더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앞뜰에서 무엇을 생각 했을까요? 신의 존재입니다!

- 이 시편에 대해 성 제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영원한 거처를 원합니다. 저의 영혼과 육체를 위한 보금자리인 주님을 갈망합니다”(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Psalms 51-150, 151). 이 안식일 여름 동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를 위한 지상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한 거주지’에 대해 일깨워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장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고려해야 할 두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 1) 우리가 주관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말 할때,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우리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뜻합니다. 사우스다코타에 있는 피정지는 아시시보다 나에게 더 좋은 곳입니다. 나는 아시시에 갔을 때마다 좋았고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던 곳이고

성지도 너무 많지만, 사우스다코타는 나에게 예수님께 집중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고, 여러 소성당에서, 그리고 명상적인 산책을 위해 평화로운 야외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내가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항상 좋은 감정을 갖지는 않았지만, 환경은 내가 하느님을 인식하고 하느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 우리 중 몇몇 사람들은 하느님을 창조물에서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피에르 신부는 때때로 밖에서 기도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는 호화 캠핑의자를 강이나 나무 아래로 가져가 책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루카 성인은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으로 “늘 하시던 대로”(루카22:39)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에는 아주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스콧 한은 성경은 창조물을 하느님께 바치는 거대한 성전으로 보고 있는데, 그분께서 그 곳에 사시고 희생을 바치신 곳입니다(*A Father Who Keeps His Promises*, 51). 믿거나 말거나, 창세기는 창조물을 재단, 지붕, 문, 창문등과 같은 이미지로 성전을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창조물은 거시적인 성전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창조물의 축소판입니다!

- 자연 속에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밖에서 기도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름다운 곳 주변으로 휴가를 계획하고 매일 그곳에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 2) 그러나 어떤 곳은 객관적으로 다른 곳보다 더 성스럽습니다. 제 1독서에서는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예루살렘] 인도하고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이사56:5-6).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가 있고, 육체적인 친밀감이 필요하고, 하느님과 육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집이 필요합니다.

-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성찬식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물리적으로 그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습니다-이제 명확한가요? 자연은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그분의 존재의 모든 것을 지탱하지만, 육체적으로는 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물리적으로 성체와 성당에 존재하시며,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와 피에르 조르시오 프라사티 수도자와 같이 야외를 사랑했던 모든 성인들도 성합 앞에서 몇시간씩을 보냈습니다.

어떤 장소들은 객관적으로 다른 장소들보다 더 거룩합니다. 그래서 수십명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살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성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이 있던 곳, 그분이 걸었던 길을 걷고, 그분이 마셨던 물을 마십니다. 예를들어 루르드, 파티마, 과다루페는 성모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때문에 오늘날에도 그 곳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래된 가정 축복으로, 우리는 천사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기를 요청합니다(Roman Ritual, p. 257

https://d03fe30f-fff9-424f-b66f-01063bd12972.filesusr.com/ugd/c6f7dd_4ff0f5d827d24264a448bf986de11f7a.pdf).

- 이것은 어느쪽이냐, 아니면 양쪽 모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디서든 그분을 만나기를 바라십니다. 가끔은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속에서 사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때는 그분께서 우리가 그의 웅장함을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하십니다. 한번은 청소년 피정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던

피정지 옆 부두에 조배실을 설치했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배경으로 예수님을 흠송할 수 있었고, 가브리엘 수녀는 창조물에서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창조주에게 인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많은 카톨릭 신자들조차도 자연 속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성당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 할 것이지만, 그들은 누가
그것을 창조했는 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한 것입니다.
- 우리의 신학생 중 한명인 솔로몬은 매주 달리기를 하며 피터앤 폴
성당의 언덕까지 올라가서 땅에 주저앉아 성당 문 밖에서 전례의
저녁기도라고 불리는 기도를 바칩니다- 이것은 두가지 모두를 갖춘
최고의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은: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도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지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 나는 여러분이 환경에 더 민감해 지고,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되도록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실이란 기도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 그들의 가정에 파티오와 워크인 클로젯 옷장을 변형시켜 작은
예배실로 만든 몇가지 예가 있습니다(Djauharis, Lobos). 이것은 영화 *The War
Room* 속, 클라라양의 기도 장으로 유명한 예입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벽에 모든 기도 제목과 전략을 세웁니다. 나는
내 직장의 방 하나를 이와 같이 만들도록
영감을받았습니다.(https://photos.wikimapia.org/p/00/00/88/14/49_big.jpg) 혹은(https://english.bethleem.org/images/monasteres/paris_11.jpg) 이렇게 가장 간단한 방법은 테이블이나 기도
코너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 1년 안에 이렇게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과 어느 곳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의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상적인 가톨릭 교회의 교리 문답은 다음과 같은 실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과 아이콘이 있는 ‘기도 코너’가 될 수 있다. 비밀스럽게, 우리 아버지 앞에 있기 위해서 이다. 기독교 가정에서 이런 작은 기도방은 대체로 기도를 촉진한다”(2691).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침묵을 지키는 곳이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것은 또한 전염병을 고려할 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 해 집안의 방 하나를 정리하기 위한 좋은 핑계가 됩니다. 마리안, 세인트 매튜, 홀리 패밀리 등 세 곳의 가톨릭 서점에서 다양한 아이콘과 종교 그림을 사러 가십시오.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과 기도가 가장 잘 되는 곳을 알아 차린 후 누군가에게 그것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오늘 온라인 채팅에 대한 질문과 미사 후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은 ‘어디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인가?’하는 것입니다.

- 편안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 자주 그 장소로 가십시오! 악마는 언제나 ‘나는 피곤해.나는 바빠,’라는 변명을 내뱉으며 여러분이 그곳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빠져들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1858년 폴란드와 스페인의 왕가에서 태어난 축복받은 Augusto Czartoryski입니다(<http://salesianfamily.net/wp-content/uploads/2019/07/BEATO-AUGUSTO-.jpg>). 그는 부모님처럼 왕족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었지만 사제직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모든 파티에] 나를 괴롭히는 피상적인 오락이며, 이들 연회에서 사람들과 친분을 맺도록

강요 받는 것이 피곤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http://www.vatican.va/news_services/liturgy/saints/ns_lit_doc_20040425_czartoryski_en.html). 그가

34살이었을 때, 그는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고 그 후 1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은 그의 과거의 삶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서품을 기념하는 성스러운 카드에 그는 무엇을 썼을까요? “정녕 당신

뜰 앞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천 날보다 더 좋습니다.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당신의 집에 살며 당신을 찬미하고

찬양합니다”(<http://salesianfamily.net/beato-augusto-czartoryski-1858-1893-2/fsadmin/>).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변화를 주기 위한 당신의 좌우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앞

뜰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천 날보다 더 좋습니다.”

*COVID-19 시기에도 복음화를 위해 열심이신 모든 사제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제를 위한 기도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사제들이 하는 모든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